

우리 모두의 이동권

“팀장님, 죄송해요... 오늘도 지하철 시위가 있대서. 네네. 한 30분 정도 지연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지하철이 가장 분주한 월요일 오전 8시, 종로를 지나 서초구까지 가기에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탑승하는 3호선의 출발점인 대화역. 여전히 멈춰 있는 지하철 칸 안에서는 또 비슷한 내용의 전화 통화들이 여기 저기 들려온다. 나 역시 이미 일주일째 지하철 연착으로 인해 요새 잦은 지각 기록을 갱신했다. 이 날 역시 충무로에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가 있다며 벌써 30분째 멈춰 꼼짝도 않는 지하철 안에서 초조하게 다리만 달달 떨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한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무슨 장애인들이 밖을 돌아다니겠다고 시위야, 시위는! 옛날 같았으면 말이지...”

할아버지의 옆에 앉아있던 친구로 보이는 분이 툭 쳐서 이내 말은 멈췄지만, 목소리가 워낙에 컸던 터라 어떤 사람들은 공감의 끄덕임을 보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열차 내 방송은 30초에 한 번씩 “이 열차는 장애인 시위 때문에 출발이 늦어지고 있으니 급한 분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고 외치고 있었다. 곳곳에서 크고 작게 한숨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가끔씩 열차 밖으로 다급히 빠져 나가는 사람들도 보였다. 아마도 버스나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러 가는 것이었으리라.

뉴스 기사에서는 여전히, <장애인 단체 출근길 시위...변질된 과격 시위>, <서울 지하철 출근길 1시간 지연...> 등의 헤드라인이 앞다투어 쏟아져 나오고, 댓글창에선 출근길을 방해받은 직장인으로 보이는 유저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건 좋지만, 시민들의 권리까지 침해해서는 안 되지 않나요?”, “선량한 시민을 인질 삼아 시위하는 장애인 단체, 보기 좀 그렇네요. 시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 같아요.” 등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

가끔 이 모든 목소리들이 하나의 거대한 눈덩이처럼 쌓여 굴러가고 있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작지만, 뭉치고 합쳐지면서 점점 더 무겁게 부풀어 오르는 눈덩이. 출근길을 방해받아 중요한 거래처와의 오전 미팅에 늦게 되어 거래가 파기된 한 직장인의 불평 한 마디, 위독한 할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는 한 시민의 토로 한 마디, 본인은 어떤 피해도 받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어쩐지 화가 난 누군가의 한 마디. ‘장애인들은 왜 이렇게 배려 없이 시위를 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나’는 쉬운 말 한 마디 말이다.

하지만 그 커다래 보이는 눈덩이는 사실 속이 공허하다. 그 누구도 본질을 보거나 맥락을 보지 않은 채 현상만 바라보며 하나씩 말을 엮는다. 왜 그들이 말하는 ‘시민’에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을까. 휠체어를 타는 이동 약자 장애인들이 고양시에서 서울시까지 이동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관심 가졌던 적은 있을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을까, 아니 궁금해 하는 마음조차 있기는 할까. 어쩌면 사실은 본인의 삶에 다가와 피부로 느끼게 된, 살면서 비장애인으로서는 몇 번 겪어 본 적 없던 대중교통에서의 불편함과 시간 낭비가 그저 불만스러웠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미 갖고 있는 자는 느끼기 어렵다는 특권이라는 감각에 절여져, 무의식중에 ‘시민’의 범주에 장애인들은 넣지 않고, 버스과 지하철은 자주 타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장애인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의문을 갖지 않는 것이다.

서울시 장애인 등록 인구는 100명 중 4명 꼴인 40만 명이고, 이 중 88%가 넘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라고 한다. 이 말은 사건 사고가 넘쳐나는 이 땅덩어리에 살면서, 조금 과장을 보태면 우리 모두는 사실 ‘잠재적 장애인’이라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사실 굳이 내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이 장애인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더 슬픈 사실은 이 정도까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장애인들을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라고 타자화하는 시민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이다.

인권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소수자들은 사회에서 종종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것처럼 지워져 버리곤 한다. 타고난 심성이 사악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구나 이런 메시지들을 듣게 되면 놀라며 본인이 작게나마 할 수 있는 연대를 시도할 테지만, 사실 이러한 메시지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날아가지도 못하고

바닥에 떨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 대중교통의 현 주소를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장애인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복잡한 출퇴근길, 사람들을 비집고 열차 안에 탑승하는 휠체어를 사람들은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는가.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앞, 휠체어가 천천히 들어가려 할 때 왜 사람들은 후다닥 엘리베이터 안으로 먼저 들어서는가. 존재 자체가 민폐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는 민폐밖에 될 수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

전장연 지하철 시위도 맨 처음엔 여러 휠체어 이용자들이 그저 지하철을 타고 내릴 뿐인 형태의 시위였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똑같이 돈 벌러 나가고, 바쁜 시간 치열하게 이동해야 하는 우리와 똑같은 시민인 그들이 고작 몇 명이 함께 지하철을 타고 내린다고 하여 이렇게나 시간이 지연되는 시스템이라면, 사실은 이 시스템이 우리를 ‘갈라치는’ 중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사태 속에서 비장애인들은 어쨌든 귀찮더라도 적어도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었다. 늦더라도 적어도 길을 ‘갈 수는’ 있었다. 세상에는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조차 없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머니 임종의 순간을 보러 가는 것 자체를 처음부터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시민들이 약속에 늦을 때면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도 모두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요구한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가장 예민하고, 가장 불편한 사람에게 편안하도록 맞추면 모든 구성원들이 편안해진다는 사실을.